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성역할 고정관념 연출프레임 분석*

이승희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 연구소 연구위원**

본 연구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어떤 방식으로 재생산하는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양극적 성차별주의 이론과 미디어 프레임 이론을 결합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성역할 고정관념 연출프레임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성역할 연출프레임의 일정한 사용패턴이 확인되었다. 첫째, 성역할 묘사 장면은 평균적으로 전체 방영시간의 약 5~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영역은 가사 및 육아 영역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연출프레임은 남성의 해방적 성역할 프레임과 여성의 온정적 성차별 프레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송에서 남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경계는 흐려지고 있는 반면, 여성에게는 더 넓은 범위에서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셋째, 성역할이 묘사되는 장면에서 언어적·비언어적 연출요소들이 성차별 연출프레임을 구축하고 있으며, 각 연출프레임마다 연출요소는 차별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제작진들은 연출 프레임에 있어서 주로 남성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성역할에 대한 시각을 풀어어나가고 있었다. 이 때 연출된 남성 등장인물의 관점은 곧 제작진의 해석이 내포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은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제작진의 해석 및 평가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같은 연출프레임 내에서도 등장인물의 성별에 따라 사용되는 연출요소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성 평등적인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연출지침을 함의에 제언했다.

핵심어: 연출프레임, 리얼리티 프로그램, 성역할 고정관념, 양성평등, 양극적 성차별주의

* 이 논문은 이승희의 박사학위 논문(2018) 중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 ashlee.lee@daum.net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페미니즘’은 2016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핵심 키워드였다. 이른바 ‘강남역 사건’ 이후 사회 속 젠더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여성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즘은 2017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근대에서 현대사회로 전환되면서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이 가능해지고, 여성인권 또한 세대를 거치며 성장해왔지만, 한편으로는 유리천장, 임금차별, 성범죄, 성차별 등의 젠더 문제들이 여전히 사회에 공존한다. 특히 최근에는 ‘미투 운동(#me too, 성폭력 피해 고발)’을 통해 그동안 암암리에 있어왔던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권력과 외압에 의한 성폭력이 특정한 별개사건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사회구조상의 문제로 인식되는 등 젠더이슈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 정부는 성차별을 지양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특히, 방송의 공익적 책무와 대중매체로서의 문화적 영향력을 강조하며 <방송심의회 관련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을 개정, 성차별적 방송내용이나 성 혐오적 표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등 미디어를 통한 양성평등 가치관 확산을 꾀했다.¹⁾ 이러한 정책적 행보들은 정부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미디어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미디어의 제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性)은 사회생활을 통해 배워기는 문화적 산물(장필화·조형, 1991)”이며, 미디어는 중요한 사회화 도구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Gunter & Wober, 1992). 심미선, 김경희 그리고 강혜란(2015)은 “텔레비전이라는 가상의 세계에서조차 양성평등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의 양성평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178쪽)”고 주장한다.

이처럼 미디어의 일상성과 광범위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미디어의 역할은 상당할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 내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단체와 학계의 보고는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방송 내에서 성차별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장르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며,²⁾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차별 유형은

1) 방송심의정책의 변화는 정부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③항의 내용을 기존의 ‘③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 ‘③방송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12.22.)로 개정하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일어날 수 있는 방식과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2016. 12. 28. 정부 3.0 보도자료).

2) 2006년 1월~2017년 6월까지의 양성평등 관련 지상파방송의 심의결과 사례를 검토한 결과, 양성평등 조항 위반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장르는 예능 장르 프로그램(라디오 프로그램 포함)이 압도적으로 많았고(10건), 그 다음으로 드라마

‘성역할 고정관념’이다.³⁾ 예능 프로그램은 장르적 특성상 수용자의 연령이나 지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문화들을 개조소재로 하여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재생산 및 전파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이승희·김균수, 2015). 특히,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도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기 포맷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설정’과 ‘현실’이 섞인 장르로, 픽션 장르와 논픽션 장르의 혼종장르로 볼 수 있다(오세정·장서지, 2013). 즉, 콘텐츠에 서사가 있어 수용자가 주인공의 관점에 몰입 및 동일시하기 쉽고, 수용자가 콘텐츠에 내포된 가치관을 받아들여 용이한 픽션 장르의 성격과(홍숙영, 2010), ‘인지된 현실감’이 높아 콘텐츠의 내용을 자신의 현실과 더 가깝게 인지함으로써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 논픽션의 성격이 혼재한다(Jones & J. M., 2003). 이러한 장르적 특성으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이데올로기나 담론에 기반한 의미 체계들을 지극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재현”함으로써 이를 재생산할 가능성을 갖는다(최은경·김승현, 2010, 187쪽).

그간 미디어 분야에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광고, 영화, TV드라마 등 픽션 장르를 연구대상으로 이뤄져 왔으며, 주로 콘텐츠 안에서 남녀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광옥·허주용, 2007; 김명혜, 2006; 윤선희, 2005; 이화정, 2013; 홍지아, 2009). 반면, 뉴스 등 논픽션 장르 영역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고, 이 경우에는 특정 분야에 대한 뉴스 보도에서의 남녀 묘사방식을 분석한 연구 외에는, 주로 남녀 뉴스앵커의 역할 분배나 방송프로그램 제작진의 성비 등 콘텐츠 외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경희·강혜란, 2016; 양우정·금희조, 2012; 정동훈·이은지, 2010).

그러나 ‘픽션’과 ‘논픽션’이 섞인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적인 픽션 장르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제작진이 등장인물의 언행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부각 및 축소하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프레임링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타 장르와 다른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주요 차별성은 제작진이 등장인물을 담아내는 장르적 특성으로 인해 등장인물과 제작진의 관점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드라마, 영화 등의 픽션 장르 프로그램이 극의 화자인 등

장르와 보도교양 장르가 동일했다(각 4건).

3)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및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서 발간한 기존의 방송프로그램 모니터링 보고서에 공통적으로 보고된 방송프로그램 내 주요 성차별 유형들로는 ‘성역할 고정관념 조장’, ‘여성의 주체성 무시 및 남성 의존성향 강조’,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외모지상주의 조장’, ‘여성의 성적 대상화’ 등이 있다. 특히 ‘성역할 고정관념’은 방송프로그램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성차별 유형으로 꼽힌다(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2017. 3월~9월).

장인물의 관점으로 일관되게 진행되는 것과 달리,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등장인물과 제작진(또는 관찰자로 설정된 제3자)의 관점을 넘나들 수 있으며, 제작진이 자막, 음악 등의 연출요소를 통해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가 가미된 연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작진의 의도적 연출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생산할 여지가 있다. 등장인물의 언행에 대한 제작진의 해석과 관점은 연출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시청자는 무의식적으로 등장인물의 언행을 제작진의 해석 및 평가와 함께 해당 콘텐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수용자는 자신이 본 것과 자신에게 주어진 관점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De Graaf, Hoeken, Sanders, & Beentjes, 2012). 등장인물의 언행에 대한 제작진의 긍부정적 평가가 내포된 연출 장면은 방송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그 자체로서 등장인물의 특정 언행에 대한 일종의 즉각적인 사회적 평가로 기능하게 되며, 이는 곧 제작진이 등장인물의 언행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던지를 잠재적으로 규정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⁴⁾ 결과적으로 제작진의 연출이 등장인물의 언행에 대한 '성역할 적합성 판단'의 사회화 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실존인물의 일상적 언행이 제작진의 연출을 통해 재가공 되면서, 제작진은 방송을 통해 '제작진의 의도적 프레임, 사실적 소재(이야기), 이에 대한 (제작진이 규정한) 사회적 평가'를 동시에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제작진이 시청자에게 '특정 상황이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해야 할지'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레임의 기능이 작동하는 것이다. 미디어의 사회화 기능을 고려했을 때(McQuail, 2005), 이러한 과정은 성역할 고정관념의 사회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남녀 등장인물의 언행이 제작진이 선택한 연출요소를 통해 어떻게 프레임 되는지에 주목한다. 이러한 프레임 기능은 최근 몇 년 새 예능 프로그램의 전체 시청률을 견인하는 주류 장르가 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고유한 장르적 특성에 의한 것이므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미디어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어떻게 재현되는지 묘사 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면, 본 연구는 기존의 주된 연구관심사였던 '묘사된 성역할 고정관념의 유형'이 아니라 '성역할 고정관념이 묘사되는 방식'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강조를 통해 성차별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을 프레임 분석틀로서 사용한다. 예능 프로그램이 연출을 통해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주

4) 비슷한 맥락에서 맥카트니(McCarthy, 2007)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사소한 오락프로그램의 성격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적인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영역임을 강조했으며, 이희은(2014)은 관찰예능이 현대사회에서 시민성을 교육하는 자기계발서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217쪽).

요한 사회적 자산인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미디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코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다.

2. 기존문헌 연구

1)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

“사실성 프로그램과 허구적 재연 양식의 혼합 장르(김예란·박주연, 2006, 14쪽)”로 정의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최근 예능 프로그램의 전체 시청률을 견인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 예능장르 프로그램 포맷이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픽션과 논픽션 장르의 혼종으로서 현실감과 극적 서사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장르적 특성을 가진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많은 부분 다큐멘터리의 영상 제작 방식을 차용함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느낌을 수용자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많은 부분 드라마적 요소가 가미된 장르이기 때문이다(최은경·김승현, 2010). 드라마와 같이 극화된 프로그램 장르는 수용자가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함으로써 허구적 내용과 현실의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할 수 있는데(홍석경, 1999), 이러한 극적인 효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논픽션의 요소는 시청자로 하여금 개인의 경험을 상기시키거나 혹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심리적 현실감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임선희, 2000). 이종수(2004)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공적 세팅에서 만들어내는 현실”이지만 시청자들은 출연자의 일상생활을 보며 그 안에서 진실성과 유의미성을 포착한다고 설명한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소재를 일상에서 찾는다. 출연자를 시청자 주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보통사람’으로 비추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소소한 개인적 일상을 다룬다(신상기·이종대, 2014; 신상기, 2015). 시청자들은 출연자를 가까이 볼 수 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출연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끼며 스스로 출연자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임의택·최은경, 2016). 또한 제작진은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출연자에게 픽션 장르처럼 캐릭터를 부여하는 등의 서사 전략들을 통해 시청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제작진이 관찰자의 입장으로 프로그램 안의 상황에 개입하기도 한다(김윤희, 2017; 한형주, 2009).

전술한 바와 같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 코미디 등의 픽션 장르 오락물과 가장 크게 차별되는 점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논픽션 장르와 픽션 장르의 혼종 장르로서

가지는 현실감과 극적 서사이다. 수용자는 극적 서사로 인해 프로그램의 내용에 보다 쉽게 몰입하고 등장인물과 동일시하기 용이한 반면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것이라고 생각해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다 현실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혼종장르로서 가지게 되는 중요한 특이점이 또 하나 있다. 기존의 픽션 장르 영상물에서는 서사가 주인공과 결부되어 있어 주인공의 시점으로 극을 이어나갔던 반면,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픽션과 논픽션의 장르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극 속에 존재하는 등장인물과 극 밖에 존재하는 제작진의 시점을 분리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뉴스와 같이 실제 일어난 사건(등장인물이 행한 행동이나 처한 상황)에 대해 제작진이 전지적 시점 또는 관찰자 시점에서 등장인물을 평가하거나 시청자가 특정한 방향으로 생각하게끔 연출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즉, '관점의 분리'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이 제작진의 의도적 연출과 결합한다면 제작진의 이데올로기를 시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가족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생산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주목하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인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등은 연예인이 출연하여 연예인으로서의 좌충우돌 사건들을 보여주지만, 가족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특정한 상황을 설정하기보다는 연예인들이 보통사람으로서 겪는 일상적인 소재를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족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들이 겪는 일들은 대부분 수용자에게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에서, 제작진이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일정 방향으로 연출을 했을 때, 수용자들이 이를 본인의 현실세계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작동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내 가족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형식상 등장인물의 행동을 패널 및 MC가 함께 VCR로 관찰하고, 이에 대해 스튜디오 토크 또는 인터뷰 삽입 등을 통해 평가 또는 설명하는 방식을 포맷화한 것이 다수이므로, 이데올로기적 메시지가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2) 미디어에 나타나는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남녀의 역할 구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신념(이은숙·강희순, 2014, 50쪽)”으로 정의할 수 있다. 미디어 문화연구 학자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사랑과 결혼의 맥락에서 설명한다. 기든스(Giddens, 1996)는 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낭만적 사랑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결혼이 특별한 의미의 사회적 의식이 되면서 아내나 어머니 등의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홍지아(2012)는 성별의 차이에 따른 성역할 구분과 사회적 차별이 명확한 사회일수록 성별의 차이를 구분하고 그 절대성을 지지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성차별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폭력 등 성적 공격 행위에 대한 지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인철·진정희, 2003).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관련 연구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성폭력에 대해 보다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한다(이은숙·강희순, 2014).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지 않은 존재로 인식케 하는 등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와 연결될 뿐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인식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매스미디어가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학자들에 의해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다(김선남, 2002; 홍석경, 1999). 최은경과 김승현(2010)은 드라마 뿐 아니라 토크쇼, 광고 등 다양한 장르의 방송콘텐츠에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구축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뉴스 보도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뉴스 보도가 어떻게 여성을 프레임링 하는가에 관심을 둔다. 김훈순(2004)은 여성범죄 관련 기사에서 여성 피해자에 대한 묘사가 선정적이고, 신체적 취약성과 수동성 등이 강조되어 묘사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조연하, 김경희, 그리고 정영희(2006)는 언론이 사회 각 분야에서 최초로 업적을 이룬 여성을 묘사할 때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성과보다 성별을 부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언론의 성역할 재생산 방식은 전문직 여성이나 여성 정치인에 대한 보도에서도 일관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됐다(허명숙, 2007; 현경미·김원용, 2005). 광고와 뮤직비디오는 콘텐츠의 길이가 짧고, 다른 미디어 장르에 비해 텍스트적 속성 보다 시각적 단서가 콘텐츠의 맥락 및 의미전달에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분명하고 빈번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김광옥과 허주용(2007)은 광고에 나타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이 주로 부모역할이나 또는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 가정주부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성적으로 표현되고 있었으며, 비과학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음을 분석했다. 조수선(2014)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간 순위별로 총 300개의 뮤직비디오를 분석한 결과 여성은 고전적 이미지, 남성은 순정적 이미지가 나타남을 발견했다. 이화정(2013)은 지난 20년간 멜로장르 TV드라마를 분석한 결과 여성 주인공이 전형적으로 여성적인 외모를 가진 수동적인 여성상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밝혔다.

예능 프로그램은 다양한 세부 장르와 포맷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을 (1) 내용 및 소재에서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경우, (2) 형식: 출연진 구성에서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경우, (3) 연출: 출연자에 대한 제작진 평가로 드러나는 경우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1) 먼저 내용 및 소재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난 경우로, 최은경과 김승현(2010)은 여성 연예인의 맞선 주선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 <골드미스가 간다>가 유교주의적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결혼을 앞둔 여

성이 갖춰야할 자연스러운 미덕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지아(2009)는 가상 결혼을 소재로 한 <우리 결혼했어요>가 남성은 사적인 감정보다 공적인 성취를 우선시하고, 여성은 공적인 성취보다 남성을 정서적으로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규정한다고 지적한다. (2) 예능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출연진의 구성 등 포맷 형식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나기도 한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7)이 발간한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차별적 내용이 묘사된 사례로 음악쇼인 <복면가왕>을 꼽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노래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하는 음악인이나 연륜 있는 전문가들은 주로 남성을, 단순한 감상이나 재미 요소로서 개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주로 여성 개그맨을 섭외함으로써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비전문적이고 감정적이며 단순하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3) 예능 프로그램의 연출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인기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1박 2일>의 이화여대 특집 방송에서 화사한 차림의 교내 여대생들을 비춘 화면 위로 여대생들을 ‘아름다운 풍경’, ‘꽃’에 비유하는 자막을 내보내거나(뉴시스, 2016, 9, 12; 세계일보, 2016, 6, 15), 리얼리티 프로그램 <엄마가 뭐길래>에서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들어가는 최민수 배우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런데 주방에서 뭐하세요?’, ‘설마... 설거지?!!’ 등의 자막을 표기하고 우울한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⁵⁾ 병영체협 리얼리티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의 여성출연자 특별 편에서는 화생방 훈련을 가장 훌륭히 견뎌 전미라씨가 전직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체력을 가진 여성이라는 것보다 그녀가 3남매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마더 미라사(마더 테레사의 변형)’라는 자막연출과 함께 ‘어머니는 강하다’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조한 사례도 있다.⁶⁾ 전통적인 남성의 영역인 ‘군대’에서의 활약이 여성에게는 비전통적인 성역할 영역임에도 이를 ‘어머니’, 또는 ‘모성’이라는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치환하여 긍정적으로 연출하는 것이다.

3) 양가적 성차별주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재현방식

성차별이란 “생물학적 성(sex) 또는 사회적 성(gender)에 근거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률 및 행동(양돈규·김정인, 2016, 78쪽)”을 뜻한다. 성차별주의는 성 행동의 본질을 왜곡시키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대표적인 사회문제는 성폭력과 성희롱이다(윤가현, 2006). 성희롱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모델 중 사회문화적 모델은 성희롱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성

5) TV조선 <엄마가 뭐길래> 2015.11.05. 방송

6) MBC <진짜 사나이> 2015.09.06. 방송

역할 고정관념의 사회화 과정으로부터 유발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성희롱 발생원인 모델인 성역할 이월 모델(sex-role spillover) 역시 남성들이 여성을 직무역할 보다는 성역할을 중심으로 성적인 대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희롱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Gutek & Morasch, 1982).

글릭과 피스크(Glick & Fiske, 1996)는 성차별주의가 “양면성을 지닌 편견의 독특한 형태”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ambivalent sexism theory)이다.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와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의 두 가지 태도로 구성된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을 남성보다 능력이 떨어져서 낮은 지위나 역할에 더 적합하다고 보는 등의 적대적 태도(이정원·안상수·김혜숙, 2009)”로, “남성이 정한 전통적 성역할에 따르지 않는 여성을 처벌하는 기능(박상희·김혜숙, 2007)”을 하며, “남성 지배적인 분야에 있어 여성이 접근하는 데 대한 적대적 반응(이선경·허용희·박선웅, 2015)”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다.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과의 이성애적 감정과 관계에서 비롯되는 보호적이고 온정적인 태도(이정원 외, 2009)”로, “남성이 정한 전통적 성역할에 따르는 여성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 상호보완적으로 기존의 성역할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기능(박상희·김혜숙, 2007)”을 하며, “성역할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여성들에 대한 호의적 반응(이선경 외, 2015)”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학자들은 온정적 성차별주의 개념이 표면적으로는 여성에 대해 친밀함을 나타내고 우대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유지하는 여성을 칭찬함으로써 남녀의 이분법적 성역할을 공고히 하고 기존의 남성지배적 권력구조를 유지시키도록 하는 보다 교묘하고 은밀한 형태의 성차별이라고 주장한다(안상수·김혜숙·안미영, 2005; 이정원 외, 2009; Glick & Fiske, 1996).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성차별은 미디어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이경자(1994)는 같은 일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도 언론이 남성과 여성을 묘사하는 방법에는 미묘한 성차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강력하다-그녀는 강압적이다, 그는 단호하다-그녀는 공격적이다, 그는 자상하다-그녀는 감정적이다”와 같은 식이다.

본 연구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가 현대적 성차별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고 측정할 수 있다고 평한 기존연구(최인철·진정희, 2003)의 주장을 수용한다. 따라서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현대사회의 현실생활에서 성차별이 작동하는 방식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이론으로 판단하고, 이를 이론적 틀로 삼아 현실세계를 재가공한 미디어 콘텐츠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묘사하는 연출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4) 영상 연출 프레이밍: 리얼리티 프로그램 분석들

미디어 프레이밍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학자들은 프레이밍이 수용자로 하여금 어떤 이슈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틀을 제시한다고 본다(Neuman, S. B., & Koskinen, P., 1992). 영상 프레이밍을 연구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영상 텍스트가 다른 내용을 텍스트 분석적 접근으로 내용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연구대상이 되는 텍스트가 영상형식을 하고 있지만, 내용을 분석한다는 점에서는 매체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김춘식·채영길·정낙원, 2015; 유형진, 2006). 다음으로 영상 텍스트를 기호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미지를 생산한 송신자의 의도적인 메시지 의미전달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김선남, 2002; 남궁영, 2009; 백선기, 2003; 이진혁, 2002). 백선기와 황우섭(2009)은 특정 토크쇼 프로그램의 의미구조를 분석한 연구에서 TV화면에 등장하는 전체적인 공간구조, 출연자와 사회자, 패널 및 방청객의 배치, 조명과 색채, 출연자의 외모, 의상, 행태 등에 대한 의미 분석을 시도했다. 영상 텍스트의 시각적 요소에 프레이밍을 적용하여 본 연구로는 이승조(2015)의 영상광고 프레이밍 연구가 있다. 그는 광고영상의 화면 전환 속도, 자동차의 움직임, 음악 또는 음성의 느낌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기준으로 광고영상 프레이밍을 분류했다. 김옥현과 김정선(2016)도 카메라 촬영기법, 사운드, 조명 등의 영상 요소들이 공익광고에서 어떻게 다문화를 프레이밍 하는지를 분석했다. 뉴스 영상을 분석한 이종혁, 김윤환, 그리고 길우영(2017)은 대선 관련 뉴스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연구에서, 영상 구성 요소의 비율, 샷의 크기, 카메라 촬영 각도, 군중의 규모 및 반응 등 영상 구성 및 촬영 방식이 대선 후보별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픽션 장르에서 영화가 어떻게 사회적 이슈를 시각적으로 재현하는지 탐색한 연구도 있다. 김정선과 민영(2012)은 동성애를 다룬 영화에서 동성애에 대한 특정한 관점이 드러난 씬(scene)을 선택, 카메라, 조명, 색 등의 영상미학적 요소를 중심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분석하여 '성역할 대비 프레이밍'과 '갈등 와해 프레이밍'을 통해 동성애가 묘사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프레이밍 이론의 기본 요지는 같은 내용의 이슈나 사건이라도 프레이밍을 상이하게 구성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당 이슈나 사건에 대한 수용자의 해석 및 판단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작자가 설정한 프레이밍에 따라 연출된 것을 보여준다(김예란·박주연, 2006; 최은경·김승현, 2010). 수용자들은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현실에 기반하여 극화된 출연자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 때 연출프레이밍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한 수용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PD는 “약간의 편집을 통해서 제작자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지만 시청자나 출연자의 반응에 따라 해석되니 일종의 열린 결말”이라고 평했으나

(김예란·박주연, 2006, 30쪽), 제작진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해석 및 의견을 획일화 할 가능성에 대한 비판(김미라, 2008) 또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갈등적 정치 뉴스 사안에 주로 적용되었던 프레임이론을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는 뿌리 깊은 젠더갈등 이슈로 확장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이 재현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위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가족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어떤 연출프레임 유형으로 얼마나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탐색적 성격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성역할 고정관념 장면의 비중과 연출프레임

연구문제 1-1. 가족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연출되는 장면의 빈도와 비중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가족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은 어떤 연출프레임 유형으로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성역할 고정관념 연출프레임별 연출요소

연구문제 2-1. 가족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성역할 고정관념 연출프레임을 구성하는 비언어적 연출 요소는 각 프레임 유형별로 어떻게 사용되는가?

연구문제 2-2. 가족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성역할 고정관념 연출프레임을 구성하는 언어적 연출 요소는 각 프레임 유형별로 어떻게 사용되는가?

연구문제 2-3. 가족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성역할 고정관념 연출프레임을 구성하는 연출요소는 등장인물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사용되는가?

1) 연출프레임 도출을 위한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을 모두 사용하여, 사회심리학분야에서 주로 논의되는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응용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현하는 성차별 프레임을 도출하고, 내용분석을 통해 실제로 성역할 묘사에 나타나고 있는 프레임을 귀납적으로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광고,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에 묘사된 성차별 관련 연구 및 모니터 보고서

등 기존 연구문헌의 결과를 종합하여, 남녀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재현되는 영역을 선별하고, 해당 장면에서 사용된 연출요소들의 유인가를 분석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입각한 연출프레임 분석틀을 도출했다. 유인가(valence)란 콘텐츠의 감정적 특성의 하위 개념으로, “감정적 경험의 긍부정성(임소혜·정지인, 2012, 213쪽)”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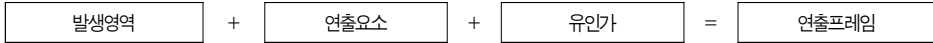


그림 1. 성역할 고정관념 연출프레임 구성요소

(1) 성역할 고정관념 발생영역

일차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성별에 대한 전형성을 도출하여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영역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했다. 여성성에 대한 기존연구 및 관련 보고서 등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표 1>과 같이 미디어에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나타나는 영역을 정리했다(김광옥·하주용, 2007; 김명혜, 2006; 김희정, 2007; 윤선희, 2005; 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홍지아, 2009, 2010). 본 연구는 과거 대비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사회적 지위 제고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남성에 대한 성차별 인식도 달라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까지 분석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언론이 남성과 여성을 묘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선행연구(이경자, 1994)와 같은 맥락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제작진의 평가가 등장인물의 성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남성과 여성 등장인물 모두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검토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 남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거의 없었으므로,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면모들을 고려하여 남성의 성역할 고정관념 영역을 도출하였다.

표 1. 성역할 고정관념 발생영역

성별	영역	고정관념	기존문헌
여성	역할	부모역할, 육아	김광옥, 하주용(2007)
		가정주부(가사)	
		성적 표현(성적대상화)	김광옥, 하주용(2007), 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7)

성별	영역	고정관념	기준문헌
여성		출산도구로서의 여성	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7)
		직업: 간호사, 비서 등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성격	온순함, 얌전함	김희정(2007), 홍지아(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비과학적	김광욱, 하주용(2007),
		보수적 성의식	김명혜(2006)
	외향	타인(특히 남성) 의존적, 수동적	윤선희(2005), 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7)
		여성적 외모, 젊은/연하여성	홍지아(2010), 김명혜(2006), 김희정(2007)
		외모지상주의(외모로 평가)	김희정(2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남성	역할	직장인	김광욱, 하주용(2007), 김희정(2007)
		유능력함	김희정(2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직업: 의사, 경영진, 전문직	김희정(2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성격	과학적	김광욱, 하주용(2007),
		건강함, 씩씩함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외향	연상남성	김명혜(2006)

(2) 예능프로그램 연출요소와 유인가

다음으로, 성역할 장면으로 선정된 분석대상 장면에 대해 연출요소의 유인가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판단했다. 예능 프로그램은 출연자의 특정 행위를 재미있게 극대화하기 위해 영상요소와 음향요소 등 연출요소를 삽입하는 편집과정을 거친다. 출연자의 심리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래픽 이미지, 제작진의 의도를 내포하는 자막 등의 영상요소와, 상황의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삽입하는 배경음악 등의 음향요소를 비언어적 연출요소와 언어적 연출요소로 나누어 분석했다. 비언어적 연출요소에는 그래픽 이미지, 배경음악, 음향효과, 리액션 트랙이 포함되며, 언어적 연출요소에는 자막과 출연자 발언이 포함된다. 감정을 분류한 기존 연구(김도연·오영·박혁로, 2012)를 수정 및 보완하여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에 속하는 하위 감정을 <표 2>와 같이 정리하고, 성역할 장면으로 선정된 씬의 연출요소가 각각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유인가를 판단했다.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한 씬 당 최대 8개 [메인자막(평가자막/감정자막), 그래픽 자막(평가자막/감정자막), 그래픽 이미지, 배경음악, 음향효과, 리액션 트랙]의 유인가가 나오게 되며, 8개의 연출요소 중 긍정적인 감정이 많으면 해당 장면은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많으면 해당 장면은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규정했다. 8개 연출요

소 중 한두 개의 요소가 빠져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합적으로 계산하며, 만약, 한 장면에 8개의 연출요소 중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반씩 있는 경우는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그래픽 이미지로 출연자의 불만 감정을 부각시키고, 자막으로 출연자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배경음악으로 우울한 음악이 삽입된다면 이는 부정적으로 프레임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도출한 성역할 고정관념 영역에 이러한 프레임의 공부정성(연출프레임의 방향성)을 결합하면 방송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현하는 방식을 분석할 수 있다.

표 2. 유인가(valence)*

긍정 감정	기쁨, 감동, 자신감, 만족, 감탄, 공감, 고마움, 기대
부정 감정	분노, 두려움, 놀람, 슬픔, 걱정, 실망, 후회, 그리움, 불만, 서먹함, 미안함, 의아함, 서운함, 측은함, 쓸쓸함, 위축, 의심

*김도연 외(2012)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언어적 연출요소인 자막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막의 종류를 기능별로 분류했다. 정수영(2009, 161쪽)은 영상자막의 종류를 “①출연자 대사 인용, ②출연자 의도/작위적 설명(출연자 의도나 생각 추정, 시청자의 감정이나 느낌을 건드리는 해석/상황설명 등), ③시선집중(의태어, 의성어, 그림, 기호 등) 등”으로 정의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 및 평가가 개입할 여지가 많은 연출자 의도 자막을 ‘등장인물 및 상황에 대한 평가 자막(이하 ‘평가자막’)과 ‘등장인물의 감정추측자막(이하 ‘감정자막)’으로 분류하여 ‘제작진 관점 자막’으로 정의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등장인물의 대사를 단순히 시간적으로 옮겨 적은 대사전달 자막과 장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적은 상황설명 자막은 정보전달이 주목적이고, 글씨체와 색감 등 약간의 시각적 효과 외에 제작진의 해석 및 평가가 개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하여 ‘정보전달 자막’으로 분류했다. 선행 연구에서 의성어, 의태어,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의 효과가 들어간 자막을 ‘코믹/효과자막(변성광, 2013)’ 또는 ‘시선집중 자막(정수영, 2009)’ 등으로 정의했던 것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성어·의태어 자막을 ‘시선주목 자막’으로 분류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영상에 표기되는 자막의 크기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막의 크기에 따라 ‘메인자막(화면의 중앙 하단에 상대적으로 큰 글씨로 표기되는 자막)’과 ‘그래픽 자막(화면의 중앙에 표기되어 시각적 효과에 보다 중점을 두는 작은 크기의 자막)’으로 분류했다.

제작진의 연출방향 외에도 등장인물의 발언으로 인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 등장인물의 발언은 제작진의 의도와 다를 수 있으며, 제작진이 직접 연출요소를 삽입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등장인물의 발언이 성차별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작진이 이를 편집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방영을 한다는 것은 소극적 의미에서 성역할 고정관념 확산에 일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출프레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등장인물의 발언을 함께 고려했다.

표 3. 예능 프로그램 연출요소

비언어적 연출요소	영상	그래픽 이미지	
	음향	배경음악	
		음향효과	
		리액션 트랙	
언어적 연출요소	영상	제작진관점 자막	등장인물/상황에 대한 평가 자막
			등장인물 감정추측 자막
		정보전달 자막	상황설명 자막
			대사전달 자막
	시선주목 자막	의성어·의태어 자막	
음향	등장인물 발언		

(3) 내용분석틀로서의 연출프레임 도출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입각하여, 성역할 장면에서 묘사되는 행동이 전통적인 성역할에 해당하는지 비전통적인 성역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해당 장면의 연출요소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출방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판단하는 연출프레임을 구축했다. 양가적 성차별주의란 진술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성역할을 칭송하거나 비전통적인 성역할을 비난하는 양가의 방식으로 성차별을 견고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기존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따라 긍정적인 성역할을 긍정하는 온정적 성차별 프레임과 비전통적인 성역할을 부정하는 적대적 성차별 프레임을 도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전에 비해 비전통적인 성역할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양가적 성차별주의에서 설명하는 기존의 두 가지의 성차별 프레임(온정적 성차별/적대적 성차별)에 대응하는 해방적 성역할 프레임(비전통적인 성역할을 긍정하는 프레임)과 저항적 성역할 프레임(전통적 성역할을 부정하는 프레임)을 새롭게 추가하여 관찰했다. 적대적 성차별 프레임의 경우, ‘비전통적인 성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내용분석을 위한 예비조사 결과 ‘비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부정’과 ‘전통적인 성역할에 미숙한 것에 대한 부정’ 등 2가지 양상으로 나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적대적 성차별 프레임의 하위 프레임을 적대적 성차별1 프레임(비전통 성역할을 부정하는 프레임)과 적대적 성차별2 프레임(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미숙함을 부정하는 프레임)으로 나누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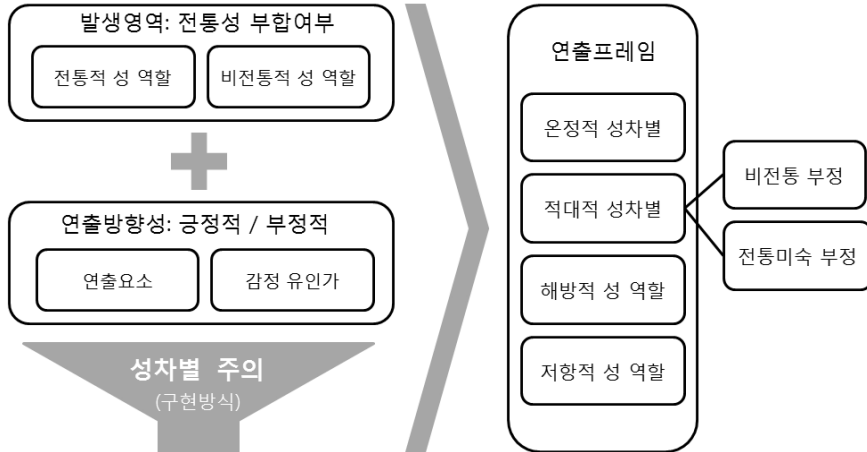


그림 2. 연출프레임 도출과정

표 4. 리얼리티 프로그램 성역할 고정관념 내용 분석틀

전통성 여부		연출 방향성	연출프레임	
전통적	긍정	}	폐쇄적 성역할 프레임	은정적 성차별 프레임
비전통적	부정			적대적 성차별 프레임 (비전통 부정/전통 미숙)
비전통적	긍정	}	개방적 성역할 프레임	해방적 성역할 프레임
전통적	부정			저항적 성역할 프레임

2) 내용분석

(1) 분석대상

내용분석 대상은 2017년 방영한 가족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한다. 본 연구는 가족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가족관계가 프로그램 내용 구성상의 핵심적 요소가 되어 가족의 일상을 관찰하는 형태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출연진들은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나 시가/처가 등 다른 가족이 함께 출연하며, 스튜디오에서 MC와 출연진의 토크가 더해지거나 관찰카메라에 내레이션 또는 인터뷰가 삽입되는 포맷의 형태를 띤다. 남녀의 성역할 행동은 부부의 관계에서 특히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부부가 함께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시청률을 고려하여 채널별로 선정했다. 6개 채널의 6개 프로그램을 무작위로 5회 방영분씩 선정하여

7) 가사를 하는 남성을 부정적으로 연출하는 것은 비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부정, 요리를 못하는 여성을 부정적으로 연출하는 것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미숙한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총 30회 분량을 내용분석 했다. 5회 분의 무작위 선정은 각 프로그램마다 프로그램 첫 회, (방영 기간 기준) 최신 회, 중간 3등분 지점의 방송분 3회로 선정했으며 특집방송이나 스페셜방송 등은 제외했다.⁸⁾ 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함에 있어서, 약간의 특정한 설정이 있더라도 비교적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일상 위주로 묘사한 프로그램을 포함토록 했으며(채널A <아빠본색>, TV조선 <엄마가 뭐길래>, KBS2 <살림하는 남자들> 등 포함), 1인가구의 일상이나, 인위적인 상황에서의 육아, 여행 등과 같이 부부나 가족의 일상보다 특정한 상황설정을 주요내용으로 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제외하였다(MBC <나 혼자 산다>,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SBS <미운 우리새끼>, <싱글와이프>, <자기야> 등 제외). 특정한 상황설정이 주가 되는 경우,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일상 위주의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역할이 묘사되는 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⁹⁾ 영상 수집은 pooq, TVing, Naver 스토어 등 방송 프로그램 VOD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식채널을 통해 수집했다.

표 5. 내용분석 대상 프로그램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송기간	출연자 관계	시청률
KBS2	살림하는 남자들2	2017.2 ~ 현재	부부와 자녀	7.0
SBS	동상이몽2	2017.7 ~ 현재	부부	9.4
tvN	신혼일기2	2017.9 ~ 2017.11	부부	5.6
TV조선	엄마가 뭐길래	2015.11 ~ 2017.4	부부와 자녀	3.3
채널A	아빠본색	2016.7 ~ 현재	부부와 자녀	2.9
E채널	별가 별가2	2017.9 ~ 2017.11	부부	0.6

(2) 코딩유목

코딩 유목은 크게 (가)전통성 여부, (나)연출요소, (다)연출프레임으로 구성했다. 분석 단위는 영상프레이밍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라 의미집합체인 씬(scene)으로 했다(김정선·민영, 2012). 씬은 여러 개의 샷(shot)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되는

8) 2017년 기준 방영된 분석대상 프로그램들의 시작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프로그램 초기에 출연진들의 캐릭터가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리얼리티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회차가 첫 회를 포함하여 최신 회까지 골고루 선택되도록 표집 기준을 설정했다.

9) 인위적인 상황설정이 프로그램의 주요포맷이 되는 경우에도 연출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날 수 있으나,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상관찰이 주 소재인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례수가 빈번하지 않아 프로그램 전체를 내용분석 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면 육아관찰 프로그램인 '슈퍼맨이 돌아왔다'나 여행관찰 프로그램인 '싱글와이프' 같은 경우 출연자들이 방문하는 곳의 정보 등에 치중되어 성역할 고정관념 보다는 광고효과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헤럴드경제, 2018, 1, 18., "싱글 와이프2' XX투어 PPL 불편 여론도...너무 대놓고 광고하는 듯").

장면의 단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씬은 출연자의 ‘단일행위 또는 소재가 연속되어 다루어지는 장면의 단위’로 조작 정의했으며, 씬 선정에 대해 언론학을 전공한 박사과정 2명의 코더가 합의 과정을 거쳤다. 장면의 내용적 연계보다 프레임의 전환에 관심을 두는 본 연구의 특성상, 동일한 시간과 장소 안에서 같은 내용의 소재가 이어지는 장면안에서도 배경음악이나 자막 등의 연출 요소의 유인가가 변환되며 새로운 분위기로 맥락전환이 일어나는 경우 별개의 씬으로 분할하였다.

가. 전통성 여부

분석대상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성역할이 묘사된 장면을 선정했다. 묘사된 성역할의 전통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에서 제작한 양성평등 방송제작 가이드라인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조항을 분석기준으로 삼았다.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성역할 묘사 영역에서 가이드라인과 방송심의규정에서 성차별적 내용으로 규정한 <표 6>과 같은 내용이 방송되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코더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분석대상 씬을 선정했다.

표 6. 양성평등 관련 방송제작 가이드라인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작 가이드라인(2016)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조항
① 남자는 씩씩하고 여자는 얌전해야 한다는 등의 이분법적 묘사나 제언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내레이션이나 자막, 배경 등에 성 고정관념을 반영	② 방송은 특정 성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성을 다른 성에 종속되거나 열등한 존재로 재현	③ 방송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의 성취를 묘사할 때 남성은 능력, 여성은 외모 등 다른 기준을 강조	④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각종 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여성은 간호사나 비서, 남성은 의사나 경영진 등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등장인물의 직업이나 지위를 획일적으로 묘사	⑤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여성만의 책임으로 묘사	
⑦ 전통적인 성 역할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이나 여성을 조롱하거나 비하 외모에 따라 성별화, 서열화 조장	

분석대상 씬이 선정되면 해당 씬에 등장하는 ①‘등장인물의 성별’, ②‘묘사되는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성격의 영역’을 고려하여 ③‘전통성 여부’를 판단했다. ①등장인물의 성별은 ‘영상 속에서 주요 행동을 하는 등장인물의 성별’을, ②영역은 ‘등장인물의 주요행동 또는 성격이 속하는 영역(ex. 가사, 육아, 내조, 직장생활, 기타 등)’을, ③전통성 여부는 ‘등장인물의 성별과 영역을 중

합하여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여성이 가사영역의 일을 하는 장면은 '전통성'으로 코딩된다. 단,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방향성이 드러나는 경우에만 분석대상으로 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요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보고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부부가 서로 정해놓은 역할분담에 따라 여성이 요리를 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요리를 하는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춰 요리방법 위주로 중립적인 연출을 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포함되지 않은 장면으로 판단,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나. 연출요소

연출요소는 ①그래픽 이미지, ②등장인물 및 상황에 대한 평가 자막(이하 '평가자막'), ③등장인물에 대한 감정추측자막(이하 '감정자막'), ④배경음악, ⑤리액션 트랙, ⑥등장인물의 발언을 코딩했다.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그래픽 이미지는 '주체의 감정이나 능력 등을 강조하는 목적으로 삽입되는 이미지의 사용여부', ②평가자막은 '제작진(관찰자) 관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제작진이 등장인물의 언행 또는 상황에 대해 평가내리는 자막의 사용여부'¹⁰⁾, ③감정자막은 '제작진이 등장인물의 관점을 취하며 등장인물의 감정·생각을 추측하여 나타내는 자막의 사용여부'¹¹⁾, ④배경음악은 '영상이 나오는 동안 삽입되는 배경음악의 사용여부', ⑤리액션 트랙은 '웃음소리, 감탄하는 소리,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소리 등이 녹음된 트랙을 사용했는지 여부', ⑥ 등장인물의 발언은 '등장인물의 발언 중 성역할과 관련한 내용의 발언'으로 정의했다. 각 연출요소의 유무 및 공부정성을 코딩했다. 자막의 경우 자막이 표기되는 크기에 따라 메인자막(화면 중앙 하단에 큰 글씨로 표기)과 그래픽 자막(화면 중앙에 작은 글씨로 표기)으로 나누어 각각 평가자막과 감정자막을 분석했다. 자막이 종류별로 실제로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보전달 자막(상황설명 자막, 대사전달 자막)과 시선주목 자막(의성어·의태어 자막)의 유무도 함께 코딩했다. 등장인물의 발언은 썬의 영역, 전통성, 성별을 고려하여 '0.성역할 관련 발언 없음 1.성역할 강화 2.성역할 약화 3.중립'으로 코딩했다. 해당 썬의 성역할 관련 발언의 개수를 세어, 성역할 강화 발언이 더 많으면 성역할 강화, 성역할 약화 발언이 더 많으면 성역할 약화, 성역할을 강화하는 발언과 약화하는 발언의 개수가 동등하거나 발언자체가 중립적이면 중립으로 코딩했다(〈표 3〉 참조).

10) 예를 들어, '이런 남자 또 없습니다.', '이게 최민수씨 자존심인가요?' 등

11) 예를 들어, '서운섭섭', '나도 낚지 잘 먹는데...', '문득 밀려오는 미안함' 등

다. 연출프레임

마지막으로, 위에서 코딩한 전통성 여부와 연출요소의 긍·부정성을 종합한 연출방향성을 결합하여 해당 장면의 성역할 연출이 어느 프레임에 해당하는지 판단했다.

(3) 신뢰도 작업

분석틀의 설정과 코딩항목의 배타적 분류를 위해 언론학 박사학위 과정의 두 명의 코더가 사전에 각 코딩항목의 정의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훈련, 반복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총 내용분석 분량 30개의 프로그램 중 약 20%에 해당하는 6개 분량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 검증 작업을 했다. 신뢰도는 성역할 영역 .886, 전통성 여부 1.000, 연출요소(평가자막, 감정자막, 그래픽이미지, 배경음악, 리액션트랙) 유인가 .706, 연출프레임 분류 1.000, 등장인물 발언(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여부) .707 이었으며, 전체항목에 대한 신뢰도는 .830으로 나타나 연구를 진행하기에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다(Cohen's Kappa).

4.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 성역할 고정관념 장면의 비중과 연출프레임

〈연구문제 1-1〉 가족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연출되는 장면의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6개 분석대상 프로그램의 5회분 총 방영시간 대비 성역할 묘사 장면의 방영시간 비중을 검토했다. KBS2 〈별거가 별거냐〉 11.3%, KBS2 〈살림하는 남자들2〉 9.4%, TV조선 〈엄마가 뭐길래〉 7.6%, 채널A 〈아빠본색〉 6.8%, SBS 〈동상이몽〉 5.2%, tvN 〈신혼일기2〉 4.5%로, 성역할 묘사 장면은 평균적으로 전체 방영시간의 약 5-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다음으로는 분석대상 프로그램 방영분 중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씬이 한 회당 평균 몇 건 정도 있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채널과 프로그램, 에피소드 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으나 평균적으로 2015년 11월-2016년 12월에는 회당 7.5개, 2017년 1월-2017년 12월에는 회당 8.9개의 씬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묘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 목적에 따른 기준으로 분석대상을 분류한 결과 방영시간과 사례수의 비중이 대부분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연출프레임은 단발적인 짧은 자막만으로도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방송에서의 연출프레임의 지속시간(방영시간) 보다 빈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 연출프레임이 형성된 사례 건수(빈도)를 이하 양적분석의 기본 단위로 삼았다.

방송프로그램 내용 중 성역할 고정관념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영역은 가사 영역(110건, 43%)이었으며, 육아 영역(45건, 17%)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서 ‘여성은 어리고 예뻐야 한다.’는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이나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남성에 대한 비전통적 성역할이 포함되는 외모 영역(25건, 10%), ‘온순한 아내’, ‘감성적인 여성’ 등 전형적인 여성성으로 간주되어왔던 성격적 특성이나 ‘남자는 울지 않는다.’, ‘체면’ 등 전형적인 남성성으로 간주되어왔던 성격적 특성이 포함된 성격 영역(23건, 9%), 운전을 포함한 기기조작, 기기 수리 또는 조립/제작, 스포츠 등을 포함한 능력 영역(21건, 8%) 순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묘사되었다. 그 외 직장생활 등 생업, 경제력이 포함된 생계 영역(13건, 5%), 아내의 남편에 대한 내조 영역(12건, 5%), 시댁 관련 영역(9건, 3%)에서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나타났다.

〈연구문제 1-2〉 가족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어떤 연출프레임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성역할 관련 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연출프레임은 온정적 성차별 프레임(75건, 29%), 해방적 성역할 프레임(69건, 27%), 적대적 성차별1 프레임(45건, 17%), 저항적 성역할 프레임(39건, 15%), 적대적 성차별2(전통미숙) 프레임(30건, 1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장인물의 성별에 따라 어떤 성역할 프레임을 쓰는지 살펴본 결과(〈표 8〉 참조), 남성과 여성에게 주로 쓰이는 연출프레임의 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107.945, df = 4, p < 0.01$). 남성 등장인물의 경우 해방적 성역할 프레임(62건, 45%), 적대적 성차별1 프레임(40건, 29%)이 가장 많이 쓰였으며, 특히 해방적 성역할 프레임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여성 등장인물의 경우는 온정적 성차별 프레임(56건, 47%)과 저항적 성역할 프레임(32건, 27%)이 많이 쓰였고, 특히 온정적 성차별 프레임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등장인물이 남성인 경우 해방적 성역할 프레임에서는 가사와 육아 솜씨를 칭찬하는 프레임, 적대적 성차별1 프레임에서는 남성의 가사와 육아를 ‘한심하고 불쌍한 것’으로 묘사하거나 ‘남성이기 때문에 서투름이 자연스러운 것’ 등으로 연출하는 프레임이 발견되었다. 등장인물이 여성인 경우에는 온정적 성차별 프레임에서 여성의 외모를 칭찬하는 프레임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저항적 성역할 프레임에서는 시댁과의 갈등을 극화 하는 프레임이 주로 발견되었다. 성역할이 묘사되는 영역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 가사와 육아 영역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데 비해, 여성의 경우 가사와 육아 영역 외에도 외모 영역과 시댁 관련 이슈가 상대적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남성의 경우 육아, 가사 등의 주로 새로운 성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연출하거나 부정적으로 연출하는 방식으로 묘사된 반면, 여성의 경우 육아, 가사 등의 전통적 성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연출하거나 이에 미숙한 경우 부정적으로 연출하는 방식으로 묘사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족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남성은 새로운

성역할 중심으로, 여성은 전통적 성역할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남성은 새로운 성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가, 여성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방송가에서 성역할 고정관념 탈피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주로 남성을 중심으로, 남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온정적인 성차별 프레임으로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분석대상 프로그램 총 방영시간 대비 성역할 묘사장면 방영시간 비중(5회 방영분) (초)

채널명	프로그램명	성역할장면 방영시간	총 방영시간	성역할장면 비중
KBS2	살림하는 남자들2	1582 초	16797 초	9.4 %
SBS	동상이몽2	1260 초	24140 초	5.2 %
tvN	신혼일기2	913 초	20153 초	4.5 %
TV조선	엄마가 뭐길래	1938 초	25615 초	7.6 %
채널A	아빠본색	1485 초	21999 초	6.8 %
E채널	별가 별가2	2130 초	18785 초	11.3 %

표 8. 성별에 따른 연출프레임 빈도(빈도순) (건, %)

등장인물 성별		연출프레임		전통성	영역		X ²
남성	138 (53)	해방적	62 (45)	비전통	가사	38 (61)	107.945(4)**
					육아	18 (29)	
					내조	5 (8)	
					외모	1 (2)	
		적대적1	40 (29)	비전통	가사	20 (50)	
					육아	14 (35)	
					성격	5 (13)	
					능력	1 (3)	
		온정적	19 (14)	전통	능력	8 (42)	
					생계	7 (37)	
					성격	4 (21)	
		적대적2	10 (7)	전통미숙	생계	4 (40)	
					능력	4 (40)	
					외모	2 (20)	
저항적	7 (5)	전통	성격	3 (40)			
			시택	3 (43)			
			생계	1 (14)			
계		138 (100)					
여성	120 (47)	온정적	56 (47)	전통	가사	22 (39)	
					외모	14 (25)	
					육아	10 (18)	
					내조	5 (9)	
					성격	5 (9)	

등장인물 성별		연출프레임		전통성	영역		X ²
	저항적	32 (27)	전통	가사	18 (56)		
				시택	6 (19)		
				육아	3 (9)		
				성격	2 (6)		
				내조	1 (3)		
				생계	1 (3)		
				외모	1 (3)		
	적대적2	20 (17)	전통미숙	가사	11 (55)		
				외모	7 (35)		
				내조	1 (5)		
	해방적	7 (6)	비전통	능력	5 (71)		
				가사	1 (14)		
				성격	1 (14)		
	적대적1	5 (4)	비전통	성격	2 (40)		
				능력	3 (60)		
계		120 (100)					
계		258 (100)					

** $p < 0.01$

2) 연구문제 2: 성역할 고정관념 연출프레임별 연출요소

(1) 연구문제 2-1: 비언어적 연출요소

〈연구문제 2〉에서는 각 연출프레임이 어떤 연출요소로 구성되는지를 검토했다. 먼저, 〈연구문제 2-1〉 성역할 고정관념 연출프레임을 구성하는 비언어적 연출요소를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비언어적 연출요소’로서 조사하는 그래픽 이미지, 배경음악, 음향효과, 리액션 트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분석대상 258건의 씬 중, 배경음악은 231건으로 90%의 사례에서 사용되었으며, 음향효과는 112건(43%), 리액션 트랙은 68건(26%), 그래픽 이미지는 67건(26%)이 사용되어, 배경음악과 음향효과가 연출프레임 형성에 있어 가장 빈번하고 요긴하게 사용되는 연출요소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출의도에 따라 연출요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연출요소들의 사용패턴은 각 연출프레임 마다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연출요소 중 배경음악과 음향효과는 연출프레임별로 긍정과 부정 유인가의 빈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배경음악: $n = 231$, $\chi^2 = 150.930$, $df = 4$, $p < 0.01$, 음향효과: $n = 112$, $\chi^2 = 78.156$, $df = 4$, $p < 0.01$). 그래픽 이미지와 리액션 트랙의 연출프레임별 공부정성 유인가는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이었으므로 카이제곱 검정의 전제를 충족하지 않아 피셔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진행했다. 검정 결

과, 그래픽 이미지와 리액션 트랙의 연출프레임별 긍부정성 유인가 빈도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그래픽 이미지: $n = 67$, 리액션 트랙: $n = 68$, $p < 0.01$).

연출프레임별 비언어적 연출요소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순서대로 살펴보면, 주인공이 전통적 성역할을 능숙하게 수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그리는 온정적 성차별 프레임에서는 주인공의 자신감을 표현하는 그래픽 이미지, 경쾌하고 행복한 배경음악, 긍정적인 음향효과, 감탄 및 감동을 나타내는 리액션 트랙이 주로 사용되었고, 주인공의 비전통적인 성역할 행동을 긍정적으로 그리는 해방적 성역할 프레임에서는 주인공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는 그래픽 이미지, 경쾌하고 행복한 배경음악, 긍정적인 음향효과, 감탄 및 감동을 나타내는 리액션 트랙이 주로 사용되었다. 비전통적 성역할 행동에 미숙한 모습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심하게 그리는 적대적 성차별1 프레임에서는 주인공의 심리적 위축을 나타내는 그래픽 이미지와 주인공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의아하고 궁금함을 표현하는 배경음악, 부정적인 음향효과, 주인공의 행동 및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연출하는 웃음트랙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전통적 성역할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이나 부담감을 강조하는 저항적 성역할 프레임에서는 주인공의 분노를 표현하는 그래픽 이미지와 의아하고 궁금함을 표현하는 배경음악, 부정적 음향효과, 웃음 리액션 트랙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전통적 성역할에 미숙함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적대적 성차별2 프레임에서는 주인공의 심리적 위축을 나타내는 그래픽 이미지와 우울하고 슬픈 배경음악, 부정적인 음향효과, 웃음 리액션 트랙이 주로 사용되었다.

표 9. 프레임별 사용된 비언어적 연출요소(빈도순) (건)

연출프레임	그래픽 이미지	배경음악	음향효과	리액션 트랙	
온정적 (75건, 29%)	긍정 (19건)	자신감 (7건)	경쾌/행복 (31건)	긍정 (30건)	감탄/감동 (9건)
		감탄 (6건)	사랑/감동 (15건)		
		기쁨 (4건)	유능/비뺌 (13건)	부정 (2건)	웃음 (6건)
		감동 (1건)	의아/궁금 (4건)		
기대 (1건)	부정 (7건)	우울/슬픔 (2건)	공감/이해 (2건)		
		의심/혼란 (1건)			
해방적 (69건, 27%)	긍정 (10건)	감탄 (5건)	경쾌/행복 (39건)	긍정 (33건)	감탄/감동 (7건)
		자신감 (4건)	유능/비뺌 (12건)		
		기쁨 (1건)	사랑/감동 (10건)	부정 (3건)	웃음 (6건)
		부정 (2건)	부정 (4건)		
위축 (1건)	의아/궁금 (4건)				
	불안 (1건)				

연출프레임	그래픽 이미지	배경음악	음향효과	리액션 트랙	
적대적1 (45건, 17%)	부정 (19건)	위축 (5건)	의아/궁금 (14건)	부정 (19건)	웃음 (20건)
		축은함 (3건)	우울/슬픔 (12건)		
		분노 (3건)	의심/혼란 (6건)	긍정 (1건)	감탄/감동 (1건)
		놀람 (2건)	위기/불안 (1건)		
		걱정 (2건)	경쾌/행복 (5건)		안타까움 (1건)
		슬픔 (1건)	사랑/감동 (1건)		
		불안 (1건)	경쾌/행복 (2건)		공감/이해 (1건)
		실망 (1건)			
		불만 (1건)			
저항적 (39건, 15%)	부정 (9건)	분노 (3건)	의아/궁금 (12건)	부정 (12건)	웃음 (5건)
		의심 (2건)	우울/슬픔 (7건)		
		축은함 (1건)	의심/혼란 (7건)	긍정 (1건)	안타까움 (1건)
		위축 (1건)	위기/불안 (5건)		
		놀람 (1건)	경쾌/행복 (2건)		
		미안함 (1건)			
	긍정 (1건)	자신감 (1건)			
적대적2 (30건, 12%)	부정 (7건)	위축 (2건)	우울/슬픔 (9건)	부정 (9건)	웃음 (8건)
		놀람 (2건)	의아/궁금 (5건)		
		불안 (1건)	의심/혼란 (5건)	긍정 (2건)	공감/이해 (1건)
		슬픔 (1건)	위기/불안 (5건)		
		실망 (1건)	경쾌/행복 (3건)		
258건 (100%)	67건 (26%)	231건 (90%)	112건 (43%)	68건 (26%)	

표 10. 연출프레임별 비언어적 연출요소의 유인가 빈도 차이 검정

연출요소 유인가		연출프레임		온정적	적대적1	적대적2	해방적	저항적	계
		긍정	부정						
그래픽이미지	긍정	19	0	0	10	1	30		
	부정	0	19	7	2	9	37		
Fisher		.000							
배경음악	긍정	59	6	3	61	2	131		
	부정	7	34	24	4	31	100		
χ^2		150.930(4)**							
음향효과	긍정	30	1	2	33	1	67		
	부정	2	19	9	3	12	45		
χ^2		78.156(4)**							
리액션트랙	웃음	6	20	8	6	5	45		
	감탄/감동	9	1	0	7	0	17		
	공감/이해	0	1	0	0	1	2		
	안타까움	2	1	1	0	0	4		
Fisher		.000							

** $p < 0.01$

(2) 연구문제 2-2: 언어적 연출요소

가. 자막의 쓰임

〈연구문제 2-2〉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 연출프레임을 구성하는 언어적 연출요소를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언어적 연출요소로 조사하는 자막은 화면의 아랫단에 위치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메인 자막과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타나는 화면의 중간 위치에 그래픽 이미지들과 함께 작은 글씨로 삽입되는 그래픽 자막으로 구분한다. 자막의 기능을 ‘평가자막’, ‘대사전달’, ‘상황설명’, ‘감정자막’, ‘의성/의태’로 나누어 자막의 종류에 따라 어떤 역할로 기능하는지 조사한 결과, 메인 자막은 상황/등장인물에 대한 평가자막이나 대사전달 자막, 씬의 상황을 설명하는 기능의 상황설명 자막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그래픽 자막은 대사전달 자막이나 등장인물의 감정을 추측하는 감정자막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메인 자막이 씬의 흐름과 맥락, 제작진의 해석과 평가를 나타내는 주 자막으로, 그래픽 자막이 등장인물의 입장을 표현하는 보조적인 자막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표 11. 자막종류에 따른 기능(빈도순)

(건, %)

메인 자막		그래픽 자막	
평가자막	197 (33)	대사전달	107 (38)
대사전달	135 (22)	감정자막	63 (23)
상황설명	130 (22)	의성/의태	48 (17)
감정자막	99 (16)	평가자막	36 (13)
의성/의태	41 (7)	상황설명	26 (9)
계	602 (100)	계	280 (100)

나. 연출프레임별 자막의 긍부정성

연출프레임별로 평가자막과 감정자막의 긍·부정 유인가를 살펴보면, 긍정적 자막은 평가자막과 감정자막 모두 온정적 성차별 프레임, 해방적 프레임 순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자막은 평가자막과 감정자막 모두 적대적 성차별1 프레임, 저항적 프레임, 적대적 성차별2 프레임 순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출프레임별로 메인 평가자막, 메인 감정자막의 긍정과 부정성의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메인 평가자막: $n = 197$, $\chi^2 = 151.570$, $df = 4$, $p < 0.01$, 메인 감정자막: $n = 99$, $\chi^2 = 52.896$, $df = 4$, $p < 0.01$). 그래픽 평가자막과 그래픽 감정자막의 연출프레임별 긍부정성 유인가는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이었으므로 카이제곱 검정의 전제를 충족하지 않아 피셔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진

행했다. 검정 결과, 그래픽 평가자막과 그래픽 감정자막의 연출프레임별 긍부정성 유인가 빈도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그래픽 평가자막: $n = 36$, 그래픽 감정자막: $n = 63$, $p < 0.01$).

표 12. 연출프레임별 평가자막과 감정자막의 긍·부정 유인가

(건, %)

연출프레임	긍부정성	메인 평가	메인 감정	그래픽 평가	그래픽 감정
온정적	긍정	59 (30)	23 (23)	9 (25)	9 (14)
	부정	2 (1)	4 (4)	0 (0)	2 (3)
적대적1	긍정	5 (3)	2 (2)	1 (3)	1 (2)
	부정	32 (16)	20 (20)	7 (19)	16 (25)
적대적2	긍정	1 (1)	2 (2)	0 (0)	0 (0)
	부정	18 (9)	14 (14)	5 (14)	9 (14)
해방적	긍정	51 (26)	15 (15)	11 (31)	12 (19)
	부정	1 (1)	6 (6)	1 (3)	7 (11)
저항적	긍정	3 (2)	0 (0)	1 (3)	0 (0)
	부정	25 (13)	13 (13)	1 (3)	7 (11)
계		197 (100)	99 (100)	36 (100)	63 (100)

표 13. 연출프레임별 자막의 유인가 빈도 차이 검정

연출프레임		온정적	적대적1	적대적2	해방적	저항적	계
자막 유인가	메인 평가자막	59	5	1	51	3	
	부정	2	32	18	1	25	
χ^2		151.570(4)**					
메인 감정자막	긍정	23	3	2	15	0	
	부정	4	20	14	6	13	
χ^2		52.896(4)**					
그래픽 평가자막	긍정	9	1	0	11	1	
	부정	0	7	5	1	1	
Fisher		.000					
그래픽 감정자막	긍정	9	1	0	12	0	
	부정	2	16	9	7	7	
Fisher		.000					

** $p < 0.01$

다. 연출프레임별 등장인물 성별에 따른 자막의 긍·부정성

연출프레임과 성별에 따른 메인자막의 사용 패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출프레임에 따라 평가받는 주체의 성별과 감정이 표현되는 주체의 성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제

작진이 상황이나 등장인물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평가자막은 비 전통적 성역할을 수행하는 남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성 등장인물의 경우 비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어느 정도 공존했지만, 여성 등장인물의 경우 비 전통적 성역할이 다루어지는 경우 자체가 매우 적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더 적었다. 등장인물의 감정을 추측하여 나타내는 감정자막은 제작진의 평가자막과 유인가의 방향이 거의 일치했다. 제작진은 등장인물 당사자가 제작진이 등장인물에 대해 내린 평가와 일치하는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출프레임별 감정주체의 성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n = 99$, $\chi^2 = 23.655$, $df = 4$, $p < 0.01$).

표 14. 연출프레임과 성별에 따른 평가자막 및 감정자막의 사용 (건, %)

연출 프레임	평가자막				감정자막			
	성별	유인가 (건)		성별	유인가 (건)			
온정적	남성	16 (8)	긍정 15	남성	18 (20)	긍정 16		
			부정 1			부정 2		
	여성	43 (22)	긍정 43	여성	9 (10)	긍정 7		
	남성전통	1 (1)	긍정 1		부정 2			
여성전통	1 (1)	부정 1						
적대적1	남성	32 (16)	긍정 5	남성	19 (21)	긍정 2		
			부정 27			부정 17		
	여성	4 (2)	부정 4	여성	3 (3)	부정 3		
적대적2	남성	9 (5)	긍정 1	남성	6 (7)	긍정 1		
			부정 8			부정 5		
여성	10 (5)	긍정 0	여성	10 (11)	긍정 1			
		부정 10			부정 9			
해방적	남성	47 (24)	긍정 46	남성	18 (20)	긍정 12		
			부정 1			부정 6		
여성	5 (3)	긍정 5	여성	3 (3)	긍정 3			
저항적	남성	7 (4)	긍정 2	남성	3 (3)	긍정 0		
			부정 5			부정 3		
	여성	6 (3)	긍정 1	여성	10 (11)	긍정 0		
			부정 5			부정 10		
여성전통	15 (8)	부정 15						
계	197 (100)			99 (100)				

표 15. 연출프레임별 감정자막의 주체성별 빈도 차이 검정

주체성별 \ 프레임	온정적	적대적1	적대적2	해방적	저항적	계
남성	18	19	6	18	3	64
여성	9	3	10	3	10	35
χ^2	23.655(4)**					

** $p < 0.01$

라. 등장인물 성별에 따른 자막의 사용

등장인물에 대한 제작진의 평가는 여성 등장인물(68건, 34.5%) 보다는 남성 등장인물(111건, 56.4%)에게 주로 행해졌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부정적 평가보다는 긍정적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등장인물이 아닌 성역할분담 자체에 대한 평가(2)는 남성의 전통적 성역할(1건, 0.5%)보다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17건, 8.6%)에 대해 더 많은 평가자막이 사용되었으며,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막이 많이 사용되었다.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자막은 저항적 성역할 프레임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평가받는 대상의 성별에 따른 평가자막의 유인가는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이었으므로 카이제곱 검정의 전체를 충족하지 않아 피셔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진행했으며,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남성: $n = 111$, 여성: $n = 68$, 남성의 전통적 성역할: $n = 1$,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 $n = 17$, $p < 0.01$).

표 16. 메인 평가자막이 사용되는 등장인물 성별 및 자막내용 (건, %)

평가받는 대상의 성별		자막 내용의 유인가		Fisher
남성	111 (56.4)	긍정	69 (62)	.000
		부정	42 (38)	
여성	68 (34.5)	긍정	49 (72)	
		부정	19 (28)	
남성 전통역할	1 (0.5)	긍정	1 (100)	
여성 전통역할	17 (8.6)	부정	17 (100)	
계	197 (100)			

12) 평가받는 대상의 성별은 ①남성, ②여성, ③남성의 전통적 성역할, ④여성의 전통적 성역할로 구분하였다. 제작진이 등장인물의 언행을 평가하는 경우 ①남성 또는 ②여성으로,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가 아닌 성역할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③남성의 전통적 성역할 또는 ④여성의 전통적 성역할로 판단했다. 이를테면, '26년차 주부의 관록', '청결왕 김혜경', '막내부터 업고 시작하는 숙련된 엄마' 등의 자막은 ②여성에 대한 평가자막으로, '이무리 해도 티 안 나는 집안 일', '지나가는 사람도 알만한 세 아이 키우기의 고충', '고부간의 갈등이 있긴 있겠어' 등의 자막은 ④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평가자막으로 분류되었다.

등장인물의 감정을 추측하는 감정자막이 어떤 성별의 등장인물에게 어떤 감정으로 주로 표현되었는지 살펴본 결과, 등장인물 1인칭 시점의 감정자막은 여성 등장인물(35건, 35%) 보다 남성 등장인물(64건, 65%)에게 2배에 가깝게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비등하게 표현된 가운데 긍정적 감정은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막이 가장 많았고, 부정적 감정은 불만을 나타내는 자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여성 등장인물에게는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되었으며, 긍정적인 감정은 자신감, 부정적인 감정은 분노와 불안이 많이 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제작진은 평가자막과 감정자막 모두 남성 등장인물에게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이 특정 성역할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이에 따른 등장인물의 감정을 표현할 때, 주로 남성 등장인물을 주요 화자로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감정자막 주체의 성별 및 유인가

(건, %)

감정의 주체가 되는 성별		자막내용의 유인가		자막 상세 감정 (건)	
남성	64 (65)	긍정	31 (48)	자신감	12
				감탄	10
				감동	3
				만족	3
				공감	1
				고마움	1
				기대	1
		부정	33 (52)	불만	10
				놀람	4
				위축	3
				실망	3
				슬픔	2
				걱정	2
				의아함	2
				서운함	1
				축운함	1
				의심	1
				분노	1
				불안	1
후회	1				
그리움	1				
여성	35 (35)	긍정	11 (31)	자신감	4
				감탄	2

감정의 주체가 되는 성별		지막내용의 유인가		지막 상세 감정 (건)	
				기대	2
				감동	1
				만족	1
		부정	24 (69)	분노	4
				불안	4
				위축	3
				서운함	3
				불만	3
				축은함	2
				놀람	2
				걱정	2
				실망	1
				계	99 (100)

마. 등장인물의 성역할 관련 발언

본 연구에서는 제작진의 연출을 통한 프레이밍 외에도 등장인물이 스스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발언을 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했다. 분석 단위의 씬 마다 등장인물의 개별 발언을 수집하여 성역할 고정관념 관련 여부와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및 약화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씬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발언이 많았는지 약화하는 발언이 많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등장인물이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된 발언을 한 씬(200건, 78%)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은 씬(58건, 22%)보다 3배 이상으로 많았으며, 해당 발언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씬(111건, 55.5%)이 약화하는 씬(89건, 44.5%)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출프레이밍별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발언의 발생 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 = 200$, $\chi^2 = 95.006$, $df = 4$, $p < 0.01$).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발언은 온정적 성차별 프레이밍과 적대적 성차별2 프레이밍 등 전통적 성역할을 묘사하는 씬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을 약화시키는 발언은 적대적 성차별1 프레이밍과 해방적 성역할 프레이밍 등 비전통적 성역할을 묘사하는 씬에서 주로 언급되었다. 예외적으로, 저항적 성역할 프레이밍은 전통적 성역할을 묘사하지만 성역할 고정관념을 약화하는 발언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성역할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적대적 성차별1 프레이밍이나 적대적 성차별2 프레이밍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 관련 발언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이는 조무용과 김정인(2016)이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표면적으로는 여성을 우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보다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의 성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듯이,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경우

같은 성차별이지만 칭찬 등 우호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온정적 성차별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8. 연출프레임별 성역할 고정관념 발언 포함 씬 권 (%)

연출프레임	성역할 발언 포함 씬 (건)		성역할 발언 미포함 씬 (건)
	고정관념 강화	고정관념 약화	
온정적	57 (51)	3 (3)	15 (26)
적대적1	17 (15)	19 (21)	9 (16)
적대적2	20 (18)	1 (1)	9 (16)
해방적	8 (7)	44 (49)	17 (29)
저항적	9 (8)	22 (25)	8 (13)
계	111 (100)	89 (100)	58 (100)
전체	200 (78)		58 (22)

표 19. 연출프레임별 성역할 고정관념 발언 빈도 차이 검정

고정관념	연출프레임	온정적	적대적1	적대적2	해방적	저항적	계
		강화 발언	57	17	20	8	9
약화 발언		3	19	1	44	22	89
χ^2		95.006(4)**					

** $p < 0.01$

(3) 연구문제 2-3: 등장인물 성별에 따른 연출요소 차이

분석대상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본 결과, 같은 연출프레임 내에서도 등장인물의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연출요소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먼저, 남녀 등장인물에게 사용된 배경음악의 정서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통적 성역할을 긍정히는 온정적 성차별 프레임에서 남녀 등장인물에게 공통적으로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음악과 유능함을 강조하는 음악이 사용된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남성에게는 ‘힘과 능력’을 강조하는 음악이, 여성에게는 ‘사랑’을 강조하는 음악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전통적 성역할을 부정하는 적대적 성차별1 프레임에서는 남성에게는 우울과 의심을 표현하는 음악이, 여성에게는 의아함과 의심을 표현하는 음악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연출하는 밝고 경쾌한 음악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비전통적 성역할을 수행하는 일이 남성에게는 우울한 일이거나 능력을 의심받는 일로, 여성에게는 우스꽝스러운 일이거나 능력을 의심받는 일로 묘사되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적대적 성차별2 프레임의 경우 남성에게는 우울한 음악이, 여성에게는 의심 또는 두려움을 표현하는 음악이 사용되어, 전통적인 성역할에 미숙한 경우 남성은 감정적으로 우울한

것으로, 여성은 능력을 의심받거나 불안해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해방적 성역할 프레임의 경우 남성 등장인물에게는 여성에 대한 온정적 성차별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사랑'이 강조된 음악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남성 등장인물의 비전통적 성역할 행동이 가사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사랑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에 대한 해방적 성역할 프레임에서는 유능함을 강조하는 배경음악이 사용되었다. 저항적 성역할 프레임의 경우 남성에게는 의아함을 표현하는 음악이, 여성에게는 우울, 의아함, 의심, 두려움을 나타내는 음악이 사용되었다.

표 20. 연출프레임과 등장인물 성별에 따른 배경음악의 정서구분 및 사례

연출프레임	남성 등장인물 배경음악	여성 등장인물 배경음악
온정적	공정: 밝고 경쾌, 유능함 사례: 드라마 <맥가이버> ost, 영화 <툰키> ost, 영화 <슈퍼맨> ost, 영화 <노팅힐> ost 'she', 합합 음악 등	공정: 밝고 경쾌, 유능함, 사랑 사례: 드라마 <대장금> ost, Natalie Cole 'L-O-V-E', 드라마 <도깨비> ost, The Searchers 'Love Portion No.9'
	부정: 우울, 의아함 사례: 영화 <영웅본색>ost, 드라마 <모래시계> ost	공정/부정: 밝고 경쾌, 의아함, 의심
적대적2	부정: 우울 사례: Multicycle 'A Better Day'	부정: 의심, 두려움 사례: 베토벤 교향곡 '운명', 영화 <쥬스> ost
	공정: 밝고 경쾌, 유능함, 사랑 사례: 영화 <러브앳츄얼리> ost, James Brown 'I Feel Good'	공정: 유능함 사례: 드라마 <맥가이버> ost, 조수미 'Champions'
저항적	부정: 의아함	부정: 우울, 의아함, 의심, 두려움 사례: 유키 구라모토 'Romance', KBS <인간극장> 테마곡

등장인물 및 상황에 대한 평가자막에 사용된 표현을 살펴보면 온정적 성차별 프레임의 경우 남성에게는 '상남자', '책임감', '카리스마', '자존심', '강함' 등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강요되는 성격적 특성이 주로 강조되는 반면, 여성에게는 '가녀린', '연하', '자기관리' 등의 외모 영역과, '엄마', '며느릿감', '아내' 등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위치를 강조하는 단어가 빈번히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비전통적 성역할을 부정하는 적대적 성차별1 프레임에서는 남성의 경우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닌' 등 남성 등장인물의 행동이 원래는 자연스럽게 않은 일임을 강조하거나, '조련당하는', '어색한', '신데렐라' 등 남성을 측은하게 묘사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등장인물이 여성인 경우 '설마', '여자가 그런 험한 일' 등 여성이 비전통적인 성역할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거나 의구심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상대방인

남성을 ‘불쌍한 남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다. 전통적 성역할에 미숙함을 부정하는 적대적 성차별2 프레임에서는 남성의 경우 힘이나 생계부양 영역에 있어서 미숙한 ‘미안한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비겁한’ 남성으로 묘사되었으며, 여성의 경우 외모나 성격 영역에 있어서 ‘자포자기(외모)’, ‘충격적인(외모)’, ‘눈물 없는(성격)’여성으로 묘사되었다. 해방적 성역할 프레임에서는 남성의 경우, ‘설거지는 당연히 본인의 일처럼’ 등 가사가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기꺼이 하는 남성으로 묘사되거나, 가사능력을 묘사하는 데 있어 ‘인정’, ‘멋진’, ‘아무진’, ‘능숙하게’, ‘범상치 않은’, ‘그럴듯한’ 등의 수식어가 사용되었다. 여성의 경우 ‘멋진’, ‘맥가이버’ 등 능력을 강조하거나 ‘박력’, ‘괴력’ 등, 힘을 강조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여성의 경우 ‘혼자서도 잘하는’ 등 등장인물의 행동이 원래는 여성이 혼자 하기 힘든 일임을 의미하는 자막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저항적 성역할 프레임에서는 남성의 경우 ‘국민 욕받이’, ‘강적’ 등 남성 등장인물의 언행을 비판하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여성의 경우 ‘며느리의 고충’,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등 여성 등장인물에 대한 측은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주를 이뤘다.

표 21. 연출프레임과 등장인물 성별에 따른 평가자막 사례

연출프레임	남성 등장인물 평가자막에 사용된 표현	여성 등장인물 평가자막에 사용된 표현
온정적	남편찬스, 거든, 슈퍼맨, 상남자, 자존심(힘), 카리스마, 책임감, 강함	가녀린, 주부의 관록/주부9단, 애교, 자신감(외모), 내조, 연하의 나이 강조, 아내의 밥상, 숙련된 엄마, 준비된 머느릿감, 자기관리, 가족건강지킴이, 청결왕, 아내로서의 센스
적대적1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달라진, 서툰, 신데렐라, 번두리, 아내 의존형, 놀랄 수밖에 없는, 조련 당하는, 어색한, 미숙한, 아유	설마, 불쌍한 남편, 여자가 그런 험한 일을, 힘○○(사람 이름)
적대적2	가장으로서의 미안함, 자존심(힘), 비겁한, 의문투성이	자포자기(외모), 민낯에 충격모드, 눈물 없음
해방적	육아 대디, 잔 근육, 설거지는 당연히 본인의 일처럼, 파스타 프린스, 살림내공, 인정, 자상, 자존심(외모), 멋진, 아무진, 청결남, 능숙하게, 범상치 않은 솜씨 발휘, 갖고 싶은 남자, 알뜰한설거지의 정석, 섬세한, 자신감, 달인, 클래스, 그릴 듯한, 순조로운, 프로 육아왕, 어벤져스 팔방미인, 육아의 신, 자연스러운	멋진, 맥가이버, 혼자서도 잘하는, 박력, 괴력
저항적	국민 욕받이, 체면치레, 내일은 없는 사람, 강적	자신의 시간이 없는 엄마의 삶, 며느리 내공, 며느리의 고충, 티 안 나는 집안일, 시어머니 등장에 긴장,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연중무휴 노동, 의미 없는 남편의 역할, 엄마만 바쁜 아침

등장인물의 감정을 추측한 감정자막을 살펴보면, 온정적 성차별 프레임에서는 남성은 자신감과 자존심을, 여성은 감동과 반함, 부러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적대적 성차별1 프레임에서는 남성은 머쓱하거나 어색하고 침울한 감정을, 여성은 비웃음 당할까봐 걱정하는 감정을 나타냈고, 적대적 성차별2 프레임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자존심이 상하는 것으로 묘사되었

다. 여성의 경우 특히 전통적 성역할에 미숙한 것에 대하여 불안하거나 서운한 감정이 표현되었다. 해방적 성역할 프레임에서는 남성의 경우 자신감, 인정 등의 감정이, 여성의 경우 감탄사가 표현되었으며, 저항적 성역할 프레임에서는 남성의 경우 여성의 비난에 맞서는 ‘강심장’으로, 여성의 경우 놀라고 긴장하거나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표 22. 연출프레임과 등장인물 성별에 따른 감정자막 사례

연출프레임	남성 등장인물 감정자막에 사용된 표현	여성 등장인물 감정자막에 사용된 표현
온정적	자신감, 자존심, 대단, 감탄사	감동, 반함, 부러움, 감탄사
적대적1	할 수 있는 게 이것 뿐, 머쓱, 심란, 기대 없음, 억지 미소, 외면, 침울, 천하태평, 오만상	비웃을까 걱정함
적대적2	자존심 스크래치(힘)	불안, 자존심(외모), 민망, 서운, 초조
해방적	야생남, 자신감, 인정, 뿌듯, 능숙	감탄사
저항적	강심장	놀람, 어이없음, 긴장, 화들짝, 서운함

살펴본 바와 같이 자막사용에 있어서 등장인물의 성별에 따라 그들의 행동이나 상황을 수식하는 표현이나 단어가 다르게 쓰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단어라도 남녀 등장인물의 성별에 따라 다른 맥락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단어로는 ‘자존심’을 들 수 있다. 분석대상 프로그램 중 남성 등장인물에게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쓰인 횟수는 8번이었으나 여성의 경우 1번에 그쳤다. 남성의 경우 아내의 요청으로 아침 요리를 할 때¹³⁾, 팔 굽혀펴기를 하다 무너졌을 때¹⁴⁾, 아내에게 농구를 졌을 때¹⁵⁾에 ‘자존심에 스크래치(실제 방송된 자막 표현)’가 생긴다고 표현됐다. 남성이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가사 영역의 일을 하거나 남성에게 전통적으로 요구되는 특성과 능력 영역인 ‘힘이 센 남성’과 ‘운동을 잘하는 남성’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 것으로 연출되었다. 또한 남성이 깔끔한 면도를 하는 것도 자존심의 영역으로 포함되었다.¹⁶⁾ 반면 여성이 자존심과 결부될 때는 예뻐 때로, 외모 영역에 한정되었다.¹⁷⁾

같은 상황에 다른 연출프레임이 사용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가사 영역에서, 여성 등장인물이 살림을 잘하는 경우 주부⁹⁾단, 살림꾼, 내조의 여왕 등

13) TV조선 <엄마가 뭐길래> 2015, 11, 5. 방영분

14) TV조선 <엄마가 뭐길래> 2017, 4, 20. 방영분

15) tvN <신혼일기> 2017, 10, 21. 방영분

16) 채널A <아빠본색> 2016, 11, 23. 방영분

17) TV조선 <엄마가 뭐길래> 2017, 4, 20. 방영분

가사 능력을 강조하고 칭찬하는 연출프레임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등장인물이 일반적인 남성보다 살림을 잘하거나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가 살림을 하게 된 이유에 관심을 두고 연출요소를 통해 '의아함'을 표현하는 연출프레임을 사용했으며, '생업이 부실하여 어쩔 수 없이 살림을 돕게 된 미안한 가장'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또한 등장인물이 남성일 경우 설거지 등 매우 기본적인 가사 일을 하는 경우에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님'을 강조하는 등 남성 등장인물을 칭찬하는 우호적인 평가 자막을 사용함으로써 남성에게는 가사 일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처럼 연출하는 사례를 프로그램과 채널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운동 영역에 있어서 남녀 성별에 따라 행동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 경우도 있었다. 분석대상 중 함께 운동을 하러 헬스장을 찾은 부부를 다룬 에피소드에서는, 남성은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를 지키기 위해 운동하는 것으로, 여성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¹⁸⁾ 반면, 등장인물의 성별이 달라도 같은 연출프레임이 사용되는 경우는 혼자서 육아 및 가사를 전담하는 소위 '독박육아', '독박가사'의 고단함을 묘사하는 경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성차별적 연출프레임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어떤 방식으로 재현해왔는지 사용패턴을 파악했다. 먼저 성역할 고정관념이 묘사된 장면의 비중을 살펴봤을 때, 평균적으로 프로그램 방영시간의 약 5-10%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편적으로는 큰 비중이 아닐지라도 성역할 고정관념 묘사가 시청률이 높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누적 반복된다고 가정할 때, 시청자의 인식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할 수 있다. 내용분석 결과, 성역할이 묘사되는 장면들에서 배경음악, 음향효과, 그래픽 이미지, 리액션 트랙과 같은 비언어적 연출요소들과 평가자막, 감정자막과 같은 언어적 연출요소들은 연출프레임마다 차별적으로 조합되며 각각의 연출프레임을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연출프레임은 남성의 비전통적 성역할,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 수행을 긍정적으로 연출한 프레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송에서 남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경계는 흐려지고 있는 반면, 여성에게는 외모, 시가 등 보다 넓은 범위에서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새로운 성역할은 거의 다루어지지

18) TV조선 <엄마가 뭐길래> 2017. 4. 20. 방영분

않고 있음을 발견했다.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 수행을 칭찬하고 전통적 성역할에 미숙함을 비난하지만, 새로운 성역할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시각이 여전히 보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남성의 새로운 성역할 묘사가 증가한 것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새로운 남성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의 프로그램 제작이 늘어나면서, 능숙하든 능숙하지 않든 전통적으로 남성의 성역할로 인식되지 않았던 가사나 양육을 하는 남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이란·백선기, 2016) 그러나 동시에 적대적 성차별 프레임에서 비전통적 성역할 행동이 우울하고 한심하게 연출되는 것은 등장인물이 남성일 경우에만 나타났는데, 이는 가사 일을 허드렛일로 여기는 가부장적 사고가 방송가에 아직까지 존재함을 시사한다. 반면 등장인물이 여성인 경우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부정적 연출 프레임인 저항적 성역할 프레임이 온정적 성차별 프레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작진은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 수행을 칭찬하면서도 여성이 혼자 가사 및 육아를 도맡아야 하는 경우 그 수고로움과 부담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작진들은 공통적으로 자막 사용 및 이를 통한 연출 프레이밍에 있어서 남성 등장인물 중심으로 성역할에 대한 시각을 풀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막은 프로그램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맥락을 제공하며, 시청자가 해당 사건을 어느 관점에서 바라볼지 택하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방송프로그램 안에 복수의 화자가 등장할 때, 제작진이 자막을 어떤 등장인물의 관점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시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따라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평가자막 및 감정자막을 통해 남성 등장인물이 전통적인 성역할 또는 비전통적인 성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등장인물의 감정을 추측하여 표현하는 등 남성 등장인물 위주로 연출함으로써 남성 등장인물을 해당 씬에서 시청자가 주목해야 할 주요화자로 설정할 수 있다. 특히 감정자막은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제작진 입장에서 추측하여 표현한 자막으로, 1인칭 주인공 관점으로 쓰임으로써 시청자에게 등장인물에 대한 '입장 되어보기('imagining being in someone else's shoes', Livingstone, 1998; Cohen, 2001, p.254 재인용)'를 효과적으로 주선할 수 있다. 즉, 주로 남성 등장인물에게 더 많이 쓰인 감정자막은 남성 등장인물의 관점으로 사용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남성 등장인물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방송프로그램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남성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남성 등장인물의 입장에 동조하게 할 여지가 있다. 이 때 남성 등장인물의 관점은 곧 제작진의 해석이 반영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은 제작진의 해석 및 평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배경음악이나 그래픽 등 비언어적 연출요소들도 시청자들을 제작진이 의도한 연출방향으로 이끌지만, 언어적 연출요소인

자막은 자막 안에 제작진이 선택한 관점이 직접적으로 내포되어 시청자가 어느 인물에 동일시를 할지 관점을 선택하게 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사건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감정자막과 제작진의 평가자막은 대체로 같은 방향성을 띠기 때문에, 제작진이 제시한 해석 및 평가의 설득력이 강화될 수 있다.

방송에서 묘사되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진 개인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작진이 가진 고정관념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인식이나 사내 문화, 제작관행 등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을 야기한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바라보지 않고 단지 성별로서 여성의 모든 역할을 평가하는 왜곡된 관점(sex role spillover; Gutek & Morasch, 1982)이 현재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대상화 등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사회적으로 당연시 한 결과 성폭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젠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사회 저항 운동의 일환으로서 미투 운동이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회자본이 될 수 있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방송이 공익적 책무를 다하고 계몽에 앞서기 위해서는 방송사 차원에서 양성평등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제작진을 교육시킴으로써 이 사회에 잔재해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여성에 대한 제작진의 인식이 콘텐츠에 내포되기 때문이다(조연하 외, 2006). 먼저, 방송프로그램에서 등장인물의 어떤 언행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에는 해당 인물의 능력, 인성, 지성 등으로 말미암아 평가를 해야 한다. 어떤 행위를 판단한다는 데에 그 행위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성별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사고임에도, 내용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방송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가벼운 오락거리로서 제작진이 마련한 웃음코드를 시청자에게 쉽고 즉각적으로 이해시켜야 하므로 기존에 존재하는 익숙한 사회문화적 관념들을 그대로 이용하여 웃음소재로 삼거나 흥미유발 구도를 만드는 데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남녀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를 충분한 고려 없이 흥밋거리로 편집하여 방송한다거나 사건의 전개에 성별에 따른 성격 특성 고정관념을 덧대어 이야기에 웃음소재나 갈등구조를 만들어내는 연출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방송종사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왜곡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로잡기보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이용해 내용을 극화시키는 등 하나의 제작관행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본 연구는 비전통적 성역할 영역을 묘사하는 것이 무조건 바람직하고, 전통적 성역할 영역을 묘사하는 것이 무조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장면을 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어떻게 담아내는데 주의가 기울여야 한다. 전통적인 성역할 영역을 묘사하더라도 비합리적인 판단은 배제하는 것이 미디어의 역할일 것

이며, 방송 제작진은 예능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사회발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제작진이 비도적으로라도 성역할 고정관념을 묘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i. 여성의 새로운 성역할을 적극적으로 묘사한다.’, ‘ii. 일에 대한 능력은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iii. 행동적 특성, 외형, 성격 등을 특정성별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작진 교육 및 양성 평등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비와 보다 구체적인 기준의 자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프레임 이론과 사회심리학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을 결합한 연출프레임을 개발하여 리얼리티프로그램의 성차별적 연출방식을 설명한다는 점, 뉴스보도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던 프레임 이론을 예능장르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연출요소를 통한 영상 프레임 분석’을 시도, 연구방법론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실용적 차원에서는 연구의 결과가 방송이 양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방송제작진 및 수용자의 미디어 교육에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재생산되는 방식을 연출프레임으로 유형화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그 패턴을 확인했을 뿐 이러한 연출프레임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지 않으며, 분석한 프로그램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후속연구로서 성역할 고정관념 연출프레임에 따른 수용자 반응을 조사하는 작업은 연출프레임의 실질적 효과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분석범위를 타 장르 프로그램에까지 확장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추이를 분석하는 시계열 연구를 시도한다면 양성 평등한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희·강혜란 (2016). 여성의 과소재현과 상징적 소멸. <미디어, 젠더 & 문화>, 31권 3호, 53-96.
- 김광옥·하주용 (2007). 지상파텔레비전 광고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 <한국언론학보>, 51권 2호, 453-478.
- 김선남 (2002). 매매춘 관련 TV 뉴스의 프레임 분석. <한국방송학보>, 16권 2호, 41-76.
- 김도연·오영·박혁로 (2012). 감성 강도를 고려한 감성 분석 평가집합 구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권 11호, 30-38.
- 김명혜 (2006).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에 대한 여성 수용자의 해독과 일상적 실천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6권 2호, 76-112.
- 김미라 (2008). 리얼 버라이어티 쇼의 재미 유발 기제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연구>, 67호, 143-168.
- 김예란·박주연 (2006). TV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한국방송학보>, 20권 3호, 7-48.
- 김옥현·김정선 (2016). 드러난 메시지, 숨겨진 메시지. <한국광고홍보학보>, 18권 4호, 354-383.
- 김윤희 (2017).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가족 서사 고찰. <인문콘텐츠>, 47권, 179-202.
- 김정선·민영 (2012). 동성애에 대한 한국 영화의 시각적 프레임(visual frames). <미디어, 젠더 & 문화>, 24권, 89-117.
- 김춘식·채영길·정낙원 (2015). 한국 미디어의 아프리카 묘사 방식과 수용자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제지역연구>, 18권 5호, 219-252.
- 김훈순 (2004). 한국 언론의 젠더 프레임.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7권, 63-91.
- 김희정 (2007). TV광고에 나타난 성역할 이미지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1권 4호, 7-68.
- 남궁영 (2009). SBS 드라마 '스타일'에 관한 기호학적 영상분석.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11-112.
- 박상희·김혜숙 (2007). 적대적 및 온정적 성차별주의 남성성에 대한 노출이 사회의 공정성과 자기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7. 6. 400-401.
- 변성광 (2013). 시각 문화콘텐츠로서의 TV 영상자막 연구. <영상문화콘텐츠연구>, 6권, 7-31.
- 백선기 (2003). TV 보도 영상의 서사 구조와 의미구조: '9.11 참사' 보도의 영상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0권, 57-109.
- 백선기·황우섭 (2009). 다문화성 TV 방송 프로그램이 패러독스: KBS-TV의 <미녀들의 수다>에 내재된 '다문화성'과 '섹슈얼리티'의 혼재성. <한국언론정보학보>, 45권 1호, 255-295.
- 신상기 (2015). 텔레비전 예능의 개방적 형식미 고찰.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권 1호, 381-395.
- 신상기·이종대 (2014). 텔레비전 예능의 뉴 패러다임. <영상기술연구>, 21권, 127-151.
- 심미선·김경희·강혜란 (2015). <방송심의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서울: 여성가족부.

- 안상수·김혜숙·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권 2호, 39-66.
- 양단규·김정인 (2016).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성희롱 문제인식과 성희롱 행동경험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통권 제91호, 73-96.
- 양우정·금희조. (2012). 앵커의 성별에 따른 수용자의 공신력 인식과 뉴스 평가. <한국방송학보>, 26권 5호, 193-232.
-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7).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 오세정·장서지 (2013). 리얼리티 표방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연구. <주관성연구>, 27권, 171-194.
- 우형진 (2006). 형식 파괴 뉴스 프로그램에서 묘사되는 한국 정치현실에 대한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50권 1호, 192-220.
- 윤가현 (2006). <성, 억압과 진보의 역사>. 파주: 살림출판사.
- 윤선희 (2005).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역전이와 코라. <한국언론학보>, 49권 2호, 84-109.
- 이건혁 (2002). 미디어 프레임이 부정 감정, 정치 냉소, 그리고 정치 효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6권 3호, 252-288.
- 이경자 (1994). 여성과 미디어 소비자 운동. 한국여기자클럽 편, <뉴스룸의 여기자들>, 서울:나남.
- 이란, 백선기 (2016). 육아 예능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부성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권 1호, 107-120.
- 이선경·허용희·박선웅 (2015). 성별과 나이에 따른 성폭력 인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29권 1호, 65-81.
- 이승희·김균수 (2015). 예능프로그램이 트위터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안철수 후보 편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3권 4호, 329-340.
- 이은숙·강희순 (2014).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 주장성,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성폭력 경험. <동서간호학연구지>, 20권 1호, 48-56.
- 이정원·안상수·김혜숙 (2009).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관련 정책 및 공간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9. 6. 208-209.
- 이종수 (2004). <TV 리얼리티: 디큐멘터리, 뉴스, 리얼리티쇼의 현실구성>. 서울: 한나래.
- 이종혁·김윤환·길우영 (2017). 영상에 나타난 보도 공정성 연구.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69-181.
- 이화정 (2013). 멜로장르 TV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성 주인공의 전형성(1992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권 12호, 604-613.

- 이희은 (2014). 관찰 혹은 자발적 감시. <한국방송학보>, 28권 2호, 211-248.
- 임선희 (2000). <TV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현실효과와 장치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 논문.
- 임소혜·정지인 (2012). 3D 영상의 입체성이 콘텐츠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효과: 콘텐츠의 유인가와 각성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권 6호, 211-222.
- 임의택·최은경 (2016). 리얼리티 프로그램 자막에 관한 연구. <글로벌 창의 문화연구>, 5권 1호, 108-117.
- 장필화·조형 (1991). 한국의 성문화 - 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여성학 논집>, 제8집, 이대한국여성연구소.
- 정동훈·이은지 (2010). 앵커의 성역할 인식에 따른 기사 부합성, 뉴스 평가 그리고 공신력 차이.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3권, 110-144.
- 조무용·김정인 (2016). 성평등의식과 성차별주의가 스토킹통넴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여성>, 21권 1호, 109-134.
- 조수선 (2014). 국내 뮤직비디오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권 7호, 58-69.
- 정수영 (2009). TV 영상자막의 특징 및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3권 6호, 153-176.
- 조연하·김경희·정영희 (2006). '여성 1 호'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보도의 프레임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7권 2호, 166-195.
- 최은경·김승현 (2010).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이데올로기적 현실 구성과 비판적 성찰의 이중성. <한국방송학보>, 24권 3호, 175-219.
- 최인철·진정희 (2003).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성희롱 사건의 해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3(1), 409-410.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 <2017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3월-9월.
- 한형주 (2009).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자막 생산과정에 관한 연구: mbc '무한도전', '우리 결혼 했어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명숙 (2007). 전문직 여성에 대한 언론보도 프레임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7권, 5-45.
- 현경미·김원용 (2005). 언론의 여성 정치인 관련 보도 프레임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3권, 38-72.
- 홍석경 (1999). 텔레비전 장치와 재연의 재현양식. <한국언론학보>, 43권 3호, 395-430.
- 홍숙영 (2010). 가상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권 1호, 202-212.
- 홍지아 (2009).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서사전략과 낭만적 사랑의 담론. <한국방송학보>, 23권 3호, 567-608.
- 홍지아 (2010). TV드라마를 통해 재현된 여성의 몸 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49권 1호, 122-143.
- 홍지아 (2012). TV가 제시하는 사랑할/받을 자격과 한국 사회 20대 여성들이 이를 소비하는 방식. <한국방송학보>, 26권 5호, 307-342.

- Cohen, J. (2001). Defining identification: A theoretical look at the identification of audiences with media characters.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4(3), 245-264.
- De Graaf, A., Hoeken, H., Sanders, J., & Beentjes, J. W. (2012). Identification as a mechanism of narrative persuasion. *Communication Research*, 39(6), 802-823.
- Giddens, A. (1996). Affluence, Poverty and the Idea of a Post Scarcity Society. *Development and change*, 27(2), 365-377.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91.
- Gunter, B., & Wober, J. M. (1992). *The reactive viewer: A review of research on audience reaction measurement*. John Libbey.
- Gutek, B. A., & Morasch, B. (1982). Sex ratios, sex role spillover, and sexual harassment of women at work. *Journal of Social Issues*, 38(4), 55-74.
- Jones, J. M. (2003). Show your real face: A fan study of the UK Big Brother transmissions (2000, 2001, 2002). Investigating the boundaries between notions of consumers and producers of factual television. *New Media & Society*, 5(3), 400-421.
- Livingstone, S. M. (1998). *Making sense of television: The psychology of audience interpretation*. New York: Routledge.
- McCarthy, A. (2007). Reality television: a neoliberal theater of suffering. *Social Text*, 93(25), 1741.
- McQuail, D. (2005). *Mass communication theory* (5th ed.). 양승찬·이강형 (역) (2008).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 나남.
- Neuman, S. B., & Koskinen, P. (1992). Captioned television as comprehensible input: Effects of incidental word learning from context for language minority students. *Reading research quarterly*, 95-106.

최초 투고일 2018년 12월 7일
 게재 확정일 2019년 1월 25일
 논문 수정일 2019년 1월 30일

Abstract

A Study on Media Framing of Gender Role Stereotypes in Reality TV Shows

Lee, Seunghee

Researcher, Ewha Communication and Media Research Center

This study examines how reality TV shows reproduce gender role stereotypes. To this end, it proposed an analysis framework that combines ambivalent sexism theory with media frame theory and analyzed gender role stereotypes in reality TV shows. As a result, the pattern of use of the directing frames on gender roles has been identified. The study describes 5 key results. First, scenes describing gender role account for about 5 to 10 percent of the total broadcast time and the areas with the most gender role stereotypes emerged as areas of household and child care. Second, the most frequently used directing frames were found to be the emancipated gender role frame of male and the benevolent sexism frame of female. Third, in the scene where gender roles are portrayed, linguistic and nonverbal elements compose the sexist directing frames, and the directing elements are used differently for each directing frame. Fourth, production teams were inclined to represent their views on gender roles mainly through male characters. Fifth, the study found that even within the same directing frames, there were subtle differences in the directing elements dependent upon the gender of the characters. Finally, the study suggests future directing guidelines for gender equality TV show production.

Keywords: Directing frames, reality TV shows, gender role stereotypes, gender equality, ambivalent sexism theory